

 POSRI 보고서

2012년 세계 철강산업 회고와 2013년 전망

이민근 수석연구위원, 철강전략연구센터 (leemk@posri.re.kr)

[목 차]

1. 세계 경제 및 철강산업 동향
2. 2012년 세계 철강산업, 성장에서 생존모드로!
3. 위기 속의 2013년 세계 철강산업 전망

Executive Summary

- '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주요국 재정여력 약화 및 소비·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과 같은 2.4%의 저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며, 세계 철강산업도 수요둔화 속 과잉능력 심화로 위기 국면이 지속될 전망
- '12년 세계 철강산업 패러다임은 '성장 추구'에서 '생존 우선' 모드로 전환
 - 자원버블 조정에도 불구하고, 강재가격 하락 등으로 철강사의 수익성 악화
 - 세계 각국의 다수 철강사가 설비폐쇄 및 매각, 인력감축, 경영통합 등 특단의 구조조정 및 원가절감 활동 본격화
 - 내수중심에서 신흥국 등 해외 시장으로 생산, 판매 Shift 가속화
 - 공급과잉과 수요둔화 속에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고객 확보를 위한 철강사간 서비스, 제품, 기술 차별화 경쟁 본격화
- '13년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, 세계 철강산업도 원료 가격 및 철강 시황의 변동성 확대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
 - 세계 조강생산은 전년비 2%대, 강재 평균가격은 2.3%의 증가가 예상되나, 전문기관별 가격전망에 대한 시각차가 확연하여 철강산업의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
 - 철강 원료 가격도 기상이변 등 공급차질 요인과 생산증대 등 공급확대 요인이 혼재하면서 변동 폭 확대 가능성 상존
- 따라서, 세계 철강업계는 '12년에 이어 금년에도 재무건전성 강화와 함께 신흥시장 중심의 글로벌 전개 및 판매, 기술 경쟁에 총력을 경주할 전망
 - 특히, 한·중·일 등 동북아지역 철강업계는 역내시장 침체 및 성장 둔화에 따라 내수시장 확보 경쟁뿐만 아니라,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성장시장 확보 경쟁도 더욱 격화될 전망

1. 세계 경제 및 철강산업 동향

□ 세계 경제, 펀더멘털 회복이 지연되고 저성장 국면 지속

- '12년 세계 경제는 유로존의 재정위기와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성장 둔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2.4%의 저성장 예상
 - 선진국은 유로존의 생산 약세와 미국의 고용 및 소비 회복세 부진으로 '12년 1.3%의 낮은 성장률 시현 (유로존 △0.5%, 미국 2.0%)
 - 아시아 (일본 제외) 지역도 대내외 수요 약세 영향 등으로 과거 대비 성장세가 둔화하여 5.6% 성장 예상 (중국 7.7%)
- '13년에도 주요국의 재정여력 약화,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은 2.4%로 전년 수준에 그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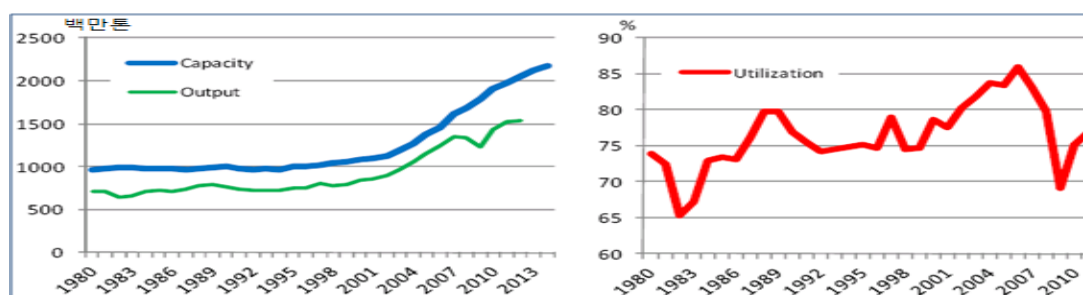
[2013년 주요국 성장률 전망 (포스코경영연구소 '12.11)]

	'11	'12e	'13e		'11	'12e	'13e
세계	3.8	2.4	2.4	미국	1.8	2.0	1.8
선진국	1.5	1.3	1.1	유로존	1.5	△0.5	△0.5
아시아	6.7	5.6	5.8	중국	9.2	7.7	7.9

□ 세계 철강산업, 수요 둔화 속에 과잉능력 심화로 생존위기 직면

- worldsteel은 '12년 세계 조강수요가 1,520백만톤 (전년비 2.1%), 생산 1,533 백만톤 (동 0.6%)에 그칠 것으로 예상
 - 지역별 수요 증가율은 북미 7.5%, 중남미 3.8%, 중국 2.5%, EU △5.6%이며, 주요국 생산 증가율은 印3.1%, 韓3.0%, 中1.7%, 日0.3%로 저조할 것으로 전망
-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신흥개도국은 철강설비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어, 철강 생산능력 과잉에 대한 우려 심화
 - 세계 조강 생산능력은 '00년 1,079백만톤에서 '12년에는 2,053백만톤으로 배증하여, 과잉능력은 521.9백만톤에 달함(OECD 추정)
 - 비효율적인 과잉 생산능력을 초래하는 정부 지원과 무역제한 조치 등이 통상 마찰과 철강사의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

[세계 조강 생산능력·생산량 및 가동률 추이(능력 OECD, 생산량 worldsteel)]



2. 2012년 세계 철강산업, 성장에서 생존 모드로!

□ '외형 성장' 중심에서 '생존 우선' 모드로 경영패러다임 급 전환

- A-Mittal 출범 이후 성공의 방정식처럼 여겨졌던 생산규모 확대 전략이 경기침체와 과잉능력 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작용
 - A-Mittal, TKS, 신일철 등 다수의 철강사가 수익 악화로 설비 폐쇄 및 매각, 경영통합 등 특단의 구조조정 작업 본격화
- 원가절감이 경영 변수에서 상수화되어 영업이익 감소분을 극한의 원가절감을 통해 만회해 보려는 자구책이 철강사 경영 트렌드로 정착
 - 철강사별 여건에 맞는 전사적 원가절감 활동의 본격 전개 속에, A-Mittal은 행정·지원 부문 기능의 30% 인원 감축 목표도 추진

□ 내수 중심에서 신흥국 등 해외 시장으로 생산,판매 Shift 가속화

- 인도·동남아 등 철강수요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 수요 선점을 위한 글로벌 철강사들의 현지 투자 및 수출 확대 경쟁 격화
 -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공급능력 과잉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, 판매 Shift가 향후에도 계속 확대될 전망
- 구미 철강사들은 아시아 시장 이외에도 아프리카, 남미, 중동 등 다양한 신흥시장에서 성장 교두보 확보를 위한 사업 전개 추진
 - A-Mittal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Seamless Pipe공장 건설에 착수하였고, Evraz는 남아공 SASM사의 지분을, Severstal은 남미 지역 단압Mill 인수를 추진

□ 자원버블 조정 불구 강재 가격 하락으로 철강사의 수익력 악화

- '12년 철광석 및 원료탄의 연평균 Spot 가격은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침체 영향 등으로 '11년 대비 각각 23%, 35% 하락
- 강재 가격은 '11년 평균 813\$/톤 (미국 HR Coil 기준)에서 '12년에는 723\$/톤으로 전년비 약 11.2% 하락

[원료 및 강재 가격 추이]

(단위: \$/톤)	철광석 (중국,CFR)	원료탄 (FOB)	강재가격(미국/HR Coil)
2011 평균	169.1	295.4	813
2012 평균	130.1	190.9	723

- 철강사 수익력도 약화되어, 보강·US스틸·SAIL 등 주요 7개사의 '12년 3/4 분기 평균 영업이익률은 3.7%로 전년 동기의 6.4%대비 하락 추세

3. 위기 속의 2013년 세계 철강산업 전망

□ '13년 세계 철강경기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'12년 대비 소폭 회복 가능 예상

- 세계 조강생산은 전년비 2%대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며, 강재 평균가격 상승률은 '13년 4Q 기준 전년 동기비 2.3% 수준으로 소폭 회복 전망
 - Financial Times의 조사에 따르면, 각 전문기관의 Analyst 별로 강재가격 전망에 대한 시각 차이가 확인하여 '13년 철강 경기 불확실성을 반증

['13년 세계 조강생산 및 강재 가격 전망]

세계 조강생산 전망 (백만톤)				강재 평균가격 상승률 (F/Times '12.12)			
	'12e	'13e	증가율	JP Morgan	△2.6%	Moodys	4.7%
WSD('12.12)	1,557	1,587	1.9%	Accenture	7.5%	Credit Suisse	12.5%
MEPS('12.10)	1,550	1,595	2.9%	MBR	△10.0%	20인 평균	2.3%

□ 원료 가격은 기상이변 등 공급차질 요인과 각국 생산증대 등 공급 확대 요인이 혼재하면서 변동 폭 확대 가능성 상존

- '13년 철광석 가격은 중국의 수요 회복, 공급 타이트 해소 지연, 투기 수요 등의 영향으로 급등락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
 - 실제 '13년 1월 첫째 주 중국의 철광석 스팟 수입가격은 재고감소와 투기수요 증가 등으로 작년 12월 평균대비 18% 상승한 톤당 154\$ 기록
- 원료탄 가격은 미국과 몽골의 원료탄 수출 증가와 같은 공급 확대 요인 등으로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
 - 석탄업계는 세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른 연료탄 수요 부진과 경영난 타개를 위해 원료탄 생산 및 수출 확대에 주력

□ 세계 철강업계, '12년에 이어 재무건전성 강화와 함께 신흥시장 중심의 글로벌 전개 및 판매, 기술 경쟁에 총력을 경주할 전망

- 원가절감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, 고급 강재 분야의 기술 차별화와 신흥국 수요 확대 등에 활로 기대
 - 특히, 한·중·일 등 동북아시아 철강업계는 역내시장 침체 및 성장 둔화에 따라 내수시장 확보 경쟁뿐만 아니라,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성장시장 확보 경쟁도 더욱 격화될 전망